

## 계시록 14 장

## 마지막 경고

계시록 14:1-5

계시록 14장에는 144,000 무리가 또 나온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 산에 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14:1-4)

나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대교인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임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동맹을 반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엘리야와 두 번째 선지자(모세나 에녹, 아니면 스룹바벨)가 두 증인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 때, 요한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한 별(사단)을 보았다(9장). 사단이 무저갱을 열자 그 속에 있던 모든 지옥의 생물들이 땅으로 나왔다. 이 생물들은 메뚜기같이 생겼지만 전갈처럼 찌르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144,000명은 하나님의 표와 인이 있기 때문에 남은 심판의 해를 받지 않는다.

144,000명에 관한 예표는 구약성경에도 있다. 노아 시대는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유일한 의인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짓고 동물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자마자 심판이 시작되었다. 노아는 하나님에 의해 인을 받아 방주 안에 남겨짐으로써 재앙과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창6, 7장). 그는 144,000명에 대한 예표라 할 수 있다.

노아의 조상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창5:24).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심판이 이르기 전에 들림받는 교회에 대한 예표이다.

앞서 말했듯이 스스로 144,000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많다. 그러나 계시록 7장은 이 무리가 열두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말해 준다. 여호와와 증인들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이라는 절을 뛰어 넘어간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나? 그것은 여호와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와’ 증인이다. 곧 자기들이 144,000명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상 올바른 이름이 아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보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이름은 야훼(YHWH)이다.

144,000명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들은 정절이 있는 순결한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어린양과 함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144,000명은 하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 가운데 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좋은 자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14:5)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되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유다는 말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버지 앞에 세우실 때, 나는 흠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죄와 불의를 씻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혀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의 사역으로 흠없는 자로 서게 해주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144,000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땅에 있게 될 박해나 환난에 대한 이상 심리나 피학증 환자들이 갖는 욕망을 갖고 있음이 틀림없다. 내가 환난에 남겨진 자라 생각할 때,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구원받는 데에도 쉽게 가는 길이 있고 어렵게 가는 길이 있다. 우리가 힘든 길을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가도록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달프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우리를 위한 많은(충분한) 기도가 올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조만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빠를수록 좋은 일이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유도 그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죽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벧후3:9)

용서받을 수 있는 기쁨,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기쁨,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견디신 것이다.(히12:2)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자기 자신 외에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하며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 교회에 위선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늘 나라에는 위선자가 전혀 없다. 위선자들이 싫다면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선자들에게 둘러싸이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이외에 어떤 사람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실 준비가 되어 있다. 144,000명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를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고 싶어하시는 인은 성령이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이르는 보증금과 같은 것이다.(엡1:13-14)

하나님은 나를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속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은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분의 소유라는 표를 찍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다. 나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한 생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 표는 나에게 있다. 나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나를 받으시고, 깨끗케 하시며, 회복시키신다. “좋아, 다시 한 번 해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며 그분의 것으로 인치기 원하신다. 복음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오래된 나쁜 습성들과 악점들을 멸하실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죄를 멸하실 수 있다. 우리의 그 성품, 태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계시록 14:6-13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졌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14:6)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한때 “왕을 모셔오자”라는 주제 아래 대단한 선교적 열망이 일어났었다. 이것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그 날을 앞당기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상 주님은 오실 수 없다!” 이것은 선교에 큰 도전이 되었고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존재들을 사용해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다.

초자연적인 사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14:7)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들에게 청하고 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14:8)

이것은 17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14:9-11)

모든 사람이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취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며,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수정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22:18-19)고 하셨다. 그러니 나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라고 청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처할 곤경은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14:12-13)

이 때에는 죽음이 오히려 나은 것이 된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에 있게 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끔찍한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다.

계시록 14:14-20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에 앞서 세상은 온통 피로 물들게 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황폐케 할 어두움의 세력과 사단의 군대를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 놓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성경에서 많이 읽고 들어온 이 끔찍한 **아마겟돈 전쟁**을 요한은 환상으로 보았다. 이 전쟁이 일어날 장소는 므깃도 골짜기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두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려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굽레까지 달았고 일천 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14:14-20)

이것은 큰 아마겟돈 전쟁으로 므깃도 골짜기가 피에 젖게 될 것을 묘사한다. 계시록 16장에는 천하의 임금들을 모을 세 더러운 영이 나온다(13-14절). 적그리스도는 유럽 국가의 연합 전선을 통하여 자기 세력과 지도권을 구축하고 엄청난 군사력으로 키워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겠는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동방의 나라들, 아마도 일본과 중국과 인도가 연합하여 말라버린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 동쪽으로부터 내려와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려 할 것이다. 그 연합 세력은 아마도 미국이 가담하게 될 유럽의 세력과 맞서 므깃도 골짜기에서 큰 전쟁을 벌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다. 인간의 부패한 나라들은 익은 포도 열매처럼 짓밟히고 터질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대학살이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